리사 나티비다드 (Lisa Natividad)

미국의 식민지하에서 우리들은 다시 한번 생존을 위한 투쟁을 전개중입니다. 차모르족은 미국의 절대적 영향권 하에 놓여 있으며, 미국식 소비주의와 서양식 가치관을 대부분 받아들인 사회 안에서 살아나가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오키나와로부터 약 8,000 여명의 해군을 우리 섬으로 재배치 하려는 연방구상은 이러한 현상황의 심각성을 잘 보여주는 사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소설가이자 지역 운동가인 줄리안 아구온(Julian Aguon)은 최근 2006 년에 낸 그의 저서 “이번은 화형: 미점령하의 삶에 대한 에세이(The Fire This Time: Essays on Life Under US Occupation)” 에서 이 연방구상에 의해 약 55,000 여명에 달하는 새로운 인구가 유입될 것이라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 추정은 군력증강을 보조할 현역근무자와 그들의 가족들, 그리고 추가적인 노동인구를 포함한 숫자입니다. 아구온은 또한 재배치로 인해 전반적인 섬 인구가 약 36%정도 증가할 것으로 보고하고 있습니다.

경제문제 해소라는 약속과 함께 미군의 증대는 더 많은 직업의 창출 - 특히 건설분야 – 과 그로인한 소비력의 강화, 지역기업과의 계약증대를 통한 연방금고 재원의 군사적 통로를 통한 지역유입 등으로 지역경제를 활성화

시킬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기대에도 불구하고 재배치 준비를 앞두고 이미 두개의 연방계약이 섬밖에 있는 기업(산디에고와 버지니아주)과 체결되었습니다. 종종 무시가 되곤 하는 경제 균등화의 헛점 중 한가지는 여전히 이 모든 것의 희생의 가치가 미달러와 센트에 기준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즉, 8,000 여명의 미해군의 재배치로 인해 얻어지는 것이 어떠한 것이든 간에 그 실리에 비해 우리 섬이 치러야 하는 비용이 너무나도 크다는 것입니다. 소음증대, 교통체증의 증대와 주택임대료 증대로 인한 불이익은 우리 지역주민들을 투기시장으로 내몰거나 주택비용의 터무니없는 증대로 귀결되어 혼란만을 초래할 가능성이 큽니다. 미 국방부는 최근 국방부 직원과 지부 직원들만을 교육시키는 시스템을 우리 지역에 구축했습니다. 이는 지역주민들의 고등교육에 대한 평등한 접근권을 차단하려는 교육분리화의 명백한 증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2006 년 9 월 미-태평양 사령부 부관인 미공군중장 대니얼 리프와 저, 나시온 차모르 (Nasion Chamoru: Chamoru Nation 차모르 민족) 그리고 한 여성운동단체가 미해군의 재배치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기 위해 만났습니다. 리프 준장은 NCTAMS (Naval Computer and Telecommunication Area Master Station) 해군 통신기지 개발계획을 우리와 함께 나누었으며 3,500 여개의 주거시설이 현역근무자와 그들의 가족들을 위해 건설될 것이라고 제시

하였습니다. 미군기지 건설에 따른 잠재적 경제적 이익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는 군사재원은 기지 개발과 해군도로와 같은 섬내의 주요도로의 개선을 위해서 쓰여질 것이라고 강조하였습니다. 덧붙여 리프 준장은 구아한(Guahan)에 쓰일 엄청난 액수의 돈은 미군의 통로에 의해서만 유통이 될 것이라고 명료하게 밝혔습니다. 미군의 활동으로 인해 오염이 된 섬내 여러 지역들에 대한 정화계획에 대해 질문했을 때 리프 준장은 그러한 우려에 대해 “어떠한 약속이라도 할 수 있는 지원이 부재한 상황” 이라고 대답했습니다. 리프 준장 자신 역시도 사립 매립지 독점이나 악화되고 있는 보건시스템, 교육시스템의 저하와 같은 지역의 기반산업 개선에 대한 어떠한 약속도 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어떠한 조건하에서도 주둔미군의 증가는 구아한 지역과 지역 주민들의 미국에 대한 의존의 증대로 귀결될 것임이 분명합니다. 미국의 정치적 평론은 항상 구아한을 재정상의 의무가 그 나라에 종속이 되어있는 복지국가라고 합니다. 하지만 우리 차모르족 주민들은 4 개의 미군기지를 위해 212 평방마일에 달하는 땅을 미국에게 내어준 희생이 미국이 보조해준 어떠한 재원이나 지역보조금보다도 훨씬 더 크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미국은 지금까지 우리 섬이 지정학적으로 유리한 위치에 놓여있다는 이유만으로 전세계에 임대료도 물지않은 체 접근권을 허용함으로써 구아한과

지역주민들을 착취해왔습니다.

구아한과 지역주민들은 미국의 국방이라는 미명하에 너무나 많은 댓가를 치러왔습니다. 미군의 주둔으로 인한 복합적인 악영향을 구아한은 지금 경험하고 있습니다. 환경오염으로 인한 심각한 건강문제가 지역인구들을 괴롭히고 있습니다. 최근의 아프라항(Apra Harbor)과 코코스 개펄(Cocos Lagoon)에서 폴리염화비페닐 PCB(polychlorinated biphenyl, 염소와 벤젠 화합물, 강한 독성과 오염으로 생산이 중단됨)이 발견된 사실에서도 알 수 있듯이 섬 전체가 각종 고엽제와 방사선, 화학물질 무단폐기에 상당히 높은 수준으로 노출되어 있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또한 1970 년대에 마샬 아일랜드의 정화정책에 따라 우리 섬이 정화지역으로 지정이 되면서 방사능 노출위험이 더욱 더 증대되었습니다. 이러한 요인들이 암과 같은 질환의 증가와 맞물려 차모르족의 평균수명을 감축시키고 있습니다.

제시된 구아한에서의 미군증대 계획안에는 여섯대의 핵항모 정박과 폭탄 무기고 건설, 그리고 연해에서의 군사훈련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구아한은 의심할 바 없이 중국과 북한 그리고 어쩌면 이라크의 첫번째 공격대상이 될 것입니다. 우리 지역주민들과 우리 아이들의 안전은 파괴적인 군대와 무기들로 보장이 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나시온 차모르를 대신하여 여러분들께 오키나와로부터 구아한으로의 8,000 여명의 미군 재배치에 반대하는 로비활동을 지지해주시기를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우리 역시 미군부대가 오키나와에서 철수되어야 함을 지지합니다. 동시에 우리는 여러분들이 일본이 지원하고 있는 재배치비용과 같은 군비배분에도 반대하는 운동에 동참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아이 나시온 차모르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아태지역에서의 미군기지 반대운동 강화를 위한 총체적인 노력을 지지할 것입니다. 연대함으로써 우리는 더욱 강해질 것이고, 우리의 안전을 개선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